

NFPA 參觀記

지난 5月 16日부터 19日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개최된 第81次 國際 防火協會(NFPA) 年次總會에 李養浩 理事長任을 수행하여 參席했다.

우리協會로서는 이 會議에 처음 參席하는것이 아니고 過去에 몇차례 參席하신분이 계신 까닭에 이번에는 이 會議의 性格等을 說明하는 것 보다 會議前後에 있었던 話題나 소감 등을 엮어서 수록해 본다.

「하와이」 「호노루루」空港 하면 東南北亞細亞인이 美國에 入國할때 꼭 거쳐야 하는 空港이고 稅關검사가 세계 어느空港보다 까다롭기로 有名한 곳이다. 美國本土直行 航空機를 타더라도 이곳에서 한두어 시간 머물며 稅關, 入國수속을 밟는다고 진땀을 빼야 하는곳이고, 특히 美國으로 移民하는 사람이 많은 現在, 「하와이」空港은 東洋 특히 韓國의 어느 市場을 방불케하는 북잡한 곳이다.

그러나 「NFPA」會議에 參席한다고 여권을 提示하자 『保險關係일도 하는가?』라고 質問하면서 『그렇다면 OK』하고 시원시원 일을 처리하여 주는 榮光(?)을 얻었다.

그리고 空港官吏는 「좋은 成果 있기를 바란다」라는 人事말까지 附言해 주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火災豫防業務나 保險業務의 인식이 아직도 社會에 깊숙히 침투되어 있지 않고 있는 처지에서 보험과 火災豫防에 關聯된 會議參席者라는 것으로 우대(?)를 해주어 부럽기도 하고 自責感 같은 것을 느끼었다.

美國에서의 保險業務는 수지도 맞

는 事業이러니와 그곳에 從事하는 분들도 社會的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美國에서 實感있게 느꼈다고 하겠다.

第81次 國際防火協會 會議는 「워싱턴」에서도 유수한 대규모 「호텔」인 「힐튼」에서 열렸다. 이 「힐튼·호텔」은 서울의 「朝鮮·호텔」과 같은 건축양식으로 세워졌는데 등록차 會議시작 전날인 15일 이곳에 到着

했을 때, 日曜日임에도 불구하고 會議개최 준비자들로 「로비」는 혼잡을 이루고 있었고 세계 여러나라, 美國全域에서 모여든 數百名이 가슴에 명찰을 붙이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가히 이 會議의 규모와 비중등을 알려주는 것 같았지만

일시에 많이 모여든 사람으로 해서 「호텔」방을 얻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會議는 千餘名の 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16日(月) 午前9時15分·우렁찬 주악, 國旗의 立場等으로 開幕되어 午前까지 議長의 人事말, 내빈축사, 경과보고, 기도, 等으로 進行되었는데, 會議場 雰囲気나 규모가 장엄하여 앞으로 우리協會가 주최하는 會議도 이와같이 進行하

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 開會式이 끝난후 각 본과위원회 의가 열렸는데 「航空機의 火災豫防」 「前年度 우수 防火人 선정」 等 우리와 약간 거리감이 있는 議題로부터 「火災豫防을 위한 各種教育方法」 「火災豫防을 위한 새로운 장비와 그 조작성」 等등의 多様な 議題를 놓고 진지하게 계속되었다. 역시 잘 사는 國民들이 大部分 참석해서 그런저 中間中間 觀光, 「파

國際防火協會 第81次

年次總會에 參席하고

元 東 喜

〈本協會·弘報部長〉

티」 등에 많은 時間을 割愛하고 있었으나 이와같은 관광이나 「파티」 「스케줄」에 理事長任이나 筆者는 한번도 參席한 바 없고 여가를 이용하여 「消防器機展示場」에 들러 各種資料를 수집하기에 바빴다.

이 會議에 參席한 분들을 職業別로 대략 나누어 보면, 「NFPA」에 加入한 團體代表나 個人會員中 防火業務에 從事하는 사람, 各單位 消防署長, 消防器機販賣業者인대

NFPA 參觀記

우리와 우연히 만나서 會議場까지 親切히 案内해준 한 消防署長은『韓國에도 이런協會가 있는가?』하고 묻고 韓國火災保險協會(KFPA)는 「NFPA」가 하고 있는 業務以外에 火災保險業務도 取扱하고 있다고 說明해 주니 理想的인 기구라고 극구 칭찬을 해주었고 「KFPA」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정식書信을 交換, 工夫를 하겠다는 外交辭인 언변만은 아닌 말을 해주어 筆者의 어

들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質問을 던지면 우리의 住所 姓名等을 끈질기게 물어와 귀찮을 정도 인 것이다. 아마 멀지 않은날 生産會社들로부터 商品 案内에 대한 인쇄물들이 本協會에 많이 우송되어 올것으로 짐작된다. 案内文이나 見本하나를 얻어도 우리機關, 姓名等이 自動적으로 수록되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얻은 案内文이나 資料의 發行社는 十中八,

은 것 같다』고 말하여 筆者의 얼굴을 붉히게 했다.

이번 會議에 참석하고 筆者가 느낀것을 한두마디로 表現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結論으로 火災豫防을 生活化하고자 하는 美國國民의 關心의 일단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일들과 當協會가 앞으로 앞장서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말만의 火災豫防, 경험에 의한 火災豫防보다 科學的이고 統計의인 바탕에서 火災를 막아 보겠다는 사람들과 消防器機 제조업자들의 일체감이 회의장에서 表現되고 있다는 事實이 부럽기만 했다.

그러나 美國도 역시 火災가 많이 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첫날 會議가 끝난 한밤중에 적막을 깨는 消防車의 「씨이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고 筆者가 귀국한 다음 다음날인 5月 28日 「켄터키」州 「사우드·게이트」市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火災가 發生, 400餘名의 人命을 앓아갔다는 外信을 접하니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連 4日間 火災豫防을 위해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美國代表들은, 아니 「사우드·게이트」市에서도 온 代表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광경을 보고 어떠한 심경에 사로잡혔을까?

筆者는 이 會議에 참석함으로써 말은 바 職務를 수행하는데 크게 「플러스」가 될 것으로 確信하고 앞으로 좀더 業務開發과 능력 제고에 力量을 경주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總會場에 參席하신 李養浩 理事長

九 商談편지를 해 올것으로 豫想된다.

이 會議期間 李養浩理事長任은 긴 여행에서 얻은 피로에도 진지하게 會議에 임하셨고 展示場 구석구석까지 資料等을 수집하시어 年下者인 筆者도 도저히 따라다닐 수 없을

만큼의 精力과 의욕을 보여주셔서 스스로 머리가 숙여졌다. 한가지 씩씩했던 것은 「힐튼·호텔」一層 賣店에 들른 本人의 명찰을 본 어여쁜 少女店員은, 불의 무서움을 곧잘 지겨리더니 『어느 해인가 「X-마스」날 한국의 한 「호텔」에서 火災가 나서 二百餘名이 燒死한 일이 있지 않은가?』하고 물으면서, 『한국이 작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火災 「뉴우스」는 많이들

가 으쓱했다. 筆者는 우리協會에서는 「불조심 어린이團」을 조직 육성하고 있으며 장학금도支給한다고 했더니 감탄, 감탄하는 것이었다. 消防器機展示室에 展示된 여러器機는 筆者가 技術職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았고 今年에 새로이 登場했다는 것도 많아서 火災豫防을 위한 業者들의 꾸준한 開發意慾의 일단을 볼수는 있었으나 이 展示場에 나와있는 器機